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5월 23일 목요일 (음 4월 19일) 제229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송재호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장을 비롯해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박덕열 산업부 지역경제진흥과장 및 중앙연구기관, 지원기관 관계자가 22일 어려움에 처한 군산지역의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모색으로 현장방문을 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와의 새만금 전기 자율차 클러스터 조성 예정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지역경제 위기극복 모색

국가균형발전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군산 방문

송하진 도지사 “조선소 재가동
미래차 클러스터 조성” 건의
송재호 위원장 “정부 전달
위기 극복에 힘 모을 것” 밝혀

지역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자동차·조선 관련 기업인,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지역혁신협의회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이번 균형발전위원회의 방문은 어려움에 처한 군산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써 전북에 대한 송재호 위원장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새만금산학융합원에서 열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군산 방문은 송재호 위원장이 군산지역의 애로사항을 건의함에 이어 균형위 주재로 군산지역 위기극복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현대중

공업 군산조선소의 재가동, 조선산업 대체물량 확보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전기차·미래차 클러스터 조성 및 부품기업 경쟁력 강화, 군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 등을 건의했다.

또한 “산업위기지역에 완성자동차 생산 및 투자를 결정한 엠에스(MS)그룹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균형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송재호 위원장은 “오늘 현장에서 들은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에 잘 전달하고,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등과 함께 산업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군산을 찾은 송재호 위원장에게 그간 전북발전전에 기여한 공로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 장애인체전 성료... 종합우승에 ‘전주시’

고창군에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린 2019 전라북도장애인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한반도 첫 수도 고창에서 웅비하는 ‘천년전북’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대회는 22일 고창 군립체육관에

서 진행된 폐회식을 끝으로 대회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체육으로 하나가 되는 이번 대회에는 14개 시·군 2700여명의 선수가 20개 종목에 참가해 그동안 같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

며 화합의 체육 한마당을 즐겼다.

이번 대회 종합우승은 전주시가 차지했으며 2위는 정읍시, 3위에는 고창군이 올랐다. 또한, 시·군 선수단의 대회 참여도를 심사하는 응원상은 부안군에게 돌아갔으며, 질서상은 완주군, 화합상은 고창군이 받았다. 노력상은 남원시가 받았으며, 모범상은 군산시가 수상했다. /고창=김영성 기자

프랑스 입양 여성, 47년만에 가족을 찾다

전주 출신! 제시카 브론씨, 고모·고모부와 상봉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나 기뻐... 경찰에 감사”

40여년 전 프랑스로 입양됐던 여성이 전북 경찰의 도움으로 가족과 만났다.

22일 제시카 브론(한국명 박난아·47)씨는 전북경찰청에서 고모와 고모부를 만났다.

브론씨는 지난 1972년 2월 18일 전주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출산 후 건강 악화로 예수병원에 입원했지만 패혈증으로 끝내 숨졌다.

그의 아버지는 홀로 양육이 버거워 입양을 결정했고, 브론씨는 익산에 있는 영아원에 보내졌다. 이후 브론씨는 6살까지 그곳에서 지냈고, 입양기관을 통해 프랑스의 한 가정으로 입양됐다.

브론씨는 12살 때 양부모를 따라 스페인 테네리페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해양 공학을 전공, 현지 모해운업체에서 근무했다.

2005부터는 해양엔지니어로 노르웨이에 있는 한국 조선소에서 검사관으로 일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2013년 스페인에서 교통사고로 양부모를 모두 잃게됐기 때문이다. 그는 두 번이나 부모를 잃었다는 생각에 슬프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후 브론씨는 친부를 찾겠다며 나섰다. 지난 2월 21일 전북지방경찰청 민원봉사실에 방문해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병원과 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 친부의 생명과 주소를 파악했다.

조사결과 친부는 이미 사망했지만 고모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제시카 브론씨는 “크게 기대하지



40여년 전 프랑스로 입양됐던 제시카 브론(박난아)씨가 22일 전북경찰청에서 고모와 포옹을 하고 있다.

않았고 주위에서도 ‘이제 포기해’라고 했는데 전북경찰청 민원실 직원들의 도움으로 꿈에 그리던 가족을 만나게 됐다”며 “가족을 만나 정말 기쁘고 다시 한번 경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 대표기업 본격 가동

내일 풀무원식품·24일 프롬바이오 공장 준공식
풀무원, 국내 농산물 활용 고부가가치 김치 생산
프롬바이오, 다이어트·관절 등 위한 제품 생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풀무원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선도기업인 프롬바이오가 공장 건립을 마무리 짓고 오는 23일과 24일에 국가식품 클러스터 익산공장 준공식을 시작으로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현을 익산시장, 이춘숙·조배숙 국회의원, 윤태진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23일 준공하는 풀무원식품은 안전하고 바른 먹거리를 생산하는 국내 대표 식품기업으로 글로벌 김치 수출 공장을 익산공장을 통해 국내 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김치를 생산할 계획이다.

24일 준공하는 프롬바이오는 자연

의 건강을 소비자에게 전달해 온 건강기능식품 선도기업으로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익산공장을 생산기지로 다이어트, 관절, 간 등을 위한 제품을 생산해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기업들의 속속 가동에 따라 2021년까지 농식품 원료 비축 공급센터를 준공해 기업 지원에 나선다.

특히 기능성식품 제형센터 및 소스 산업화센터 건립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국내 대표기업들이 속속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이에

발맞춰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도 나설 방침이다”며 “앞으로도 식품기업들의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25~26일 직거래장터 열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전국소년체전 수영종목 경기가 열리는 완산수영장에서 전주푸드 직거래장터를 개최한다.

직거래장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전북지역 7개 시·군과 제휴해 각종 다과류와 음료 등이 진행 판매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푸드는 전주지역 농업과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안전한 밥상을 책임지기 위한 먹거리 전략으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설립 이후 전주푸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송효철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JJC본사 :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